

축산시황*



■ 호주산 쇠고기 국내시장 '활개'

육질개선·안전성 무장 수입비중 76% 차지

뺏조각 검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호주산 쇠고기가 한국 쇠고기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량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로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육질을 개선, 앞으로 한우와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쇠고기 수입량은 17만9,405t으로 2005년의 14만2,601t에 비해 25%가량 증가했다. 이는 국산 쇠고기의 값이 높게 형성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입쇠고기시장에서 호주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상승, 지난해는 13만7,015t으로 전체 수입물량의 76.4%를 차지했다. 이는 수입금지조치 이전에 국내 수입쇠고기시장을 장악했던 미국산 쇠고기의 2003년 기록(75%)을 넘어선 수준이다.

이처럼 호주산이 국내 수입쇠고기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축산전문가들은 한국인 입맛에 맞게 곡물비율을 늘리고 있는 데다 그동안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차별화하기 위해 '청정우' 이미지를 강조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호주산 쇠고기를 원료로 한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 등이 점차 늘고 있는 것도 국내 소비자 입맛 변화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막상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와도 호주산 쇠

고기의 경쟁력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사먹지 않겠다'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부정적 인식이 강해 호주산 쇠고기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호주산 쇠고기의 경쟁력 향상이 한우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호주가 육질을 개선, 안전성을 무기로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외식업계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경우 한우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우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농가에서 위생과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쓰고 고급육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쇠고기 수입선을 다변화해 특정 국가가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류호천 기자 fortune@nongmin.com

[최종편집 : 2007/01/19]



■ 낙농자조금 내년 사업계획 확정

낙농자조금대의원회(의장 이한수)는 대전시 샤토그레이크 호텔에서 3차 대의원회를 열고 모두 84억원 규모의 2007년도 낙농자조금 사업 계획안을 의결

했다.

내년도 낙농자조금 사업은 소비홍보 부문에 가장 많은 69억5,800여만원이 책정돼 우유에 대한 동화와 애니메이션을 제작 보급하는 한편 우유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농민신문 김광동 기자 kimgd@nongmin.com

[최종편집 : 2006/12/22]

■ 올 낙농자조금사업 주요내용은 우유 소비촉진 홍보 비중 대폭 확대

■ 소비홍보사업

내년에는 모두 69억5천8백만원이 투입된다. 낙농자조금 사업의 82.8%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지난해보다 6.5%p 증가했다.

이 가운데 57.97%인 40억원이 TV와 라디오광고에 배정됐다. 또한 최근 우유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우유홍보 TV와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제작, 방영 협찬하기 위한 예산을 지난해 2억8천만원에서 5억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3대 가족소풍, 우유의 날 행사, 축산관련 박람회 홍보행사,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우유홍보행사 지역사랑 우유사랑캠페인과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PR사업 역시 연중 실시되는 주요홍보사업. 또한 초중고생 교과서 집필진 및 편수관을 대상으로 우유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우유를 활용한 요리를 단체급식소에서 매주 1회이상 선택함으로써 소비시장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유아,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유의 우수성과 우유마시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계층별 우유소비

촉진행사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 2억7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우유관련 동화를 제작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난해에 이어 사진공모전을 통해 우유에 대한 대국민 관심 확산과 사진자료를 확보한다는 취지로 전개하게 된다.

한편 낙농진흥회가 주최했던 학교우유급식을 늘리기 위한 초등학생 영어말하기대회를 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지역예선 개최 등 행사를 크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 교육 및 정보제공

낙농자조금사업의 6.5%(5억4천4백50만원)를 차지하게 됐다. 낙농업계의 가장 주안점인 소비홍보사업에 비중을 높인만큼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이 일부 축소됐다.

낙농자조금의 거출목적과 그 효과를 농가들에게 알림으로써 자조금사업의 기반구축 및 확대를 위해 거출 홍보물을 제작에 의무자조금도입이 얼마안된 만큼 지난해보다 5백만원 증가한 1억 7천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98%의 자조금거출율을 보이는 만큼 거출관련 홍보는 점차 축소하는 방침이다.

또한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은 소비자 및 공존공생하는 목장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낙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4천1백만원 증가한 1억4천여만원으로 확대 투입했다. 전문지 계도광고를 통해 자조금관련 대농가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자조금관련 소식에 대한 정보를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와 정기소식지 제작 및 배부사업, 인터넷정보제공사업 등

축산시황*

4가지 사업에 2억7천4백만원이 책정됐다. 현안 문제 주지와 상호 교류 및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낙농지도자대회와 전국순회낙농인대토론회에 각각 2천2백만원, 4천9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 조사연구(調査研究)

올해에는 모두 4개 조사연구사업 등에 1억4천3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국내치즈시장형성을 위한 방안마련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우리나라 치즈시장의 현주소를 파악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 위한 조사사업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치즈시장의 종합적 파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6년 의무자조금사업이 실시된 첫해이며 임의자조금보다 예산이 늘어났던 만큼 매년 실시된 낙농자조금효과분석과는 차별화된 분석결과가 나올 것을 보고 있으며 낙농자조금의 대중매체별 투자배분에 관한 연구는 자조금의 지출 규모와 대중매체별 적정 투자배분률을 제시해 보다 효과적인 자조금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신문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최종편집 : 2007/01/11]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돼지고기 소비홍보 광고가 당초 목표인 등심·뒷다리 등 저지방 부위의 소비를 크게 늘리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은 올해 초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동안 양돈자조금사업은 돼지고기 소비 확대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난 3년간 텔레비전 광고 등 돼지고기 소비홍보사업에 양돈자조금 예산이 200억원가량 투입됐지만 저지방 부위의 소비는 크게 늘지 않았고, 삼겹살에 편중된 소비 행태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회장은 특히 “외국산과 국산 돼지고기의 차별화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자조금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회장은 “돼지 도축마릿수는 산지 사육마릿수 대비 1,900만마리가 돼야 하지만 우리 양돈산업의 현실은 고작 1,300만마리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600만마리의 폐사를 감안, 생산비 투입비용 등 1조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류호천 기자 fortune@nongmin.com

[최종편집 : 2007/01/17]



■ 양돈자조금, 소비홍보 광고 개선 '절실'
삼겹살 편중 소비행태 변함없어...외국산과의 차별화로 전환 모색



■ 양계협, 지방역 순직자 유가족에 성금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을 하다 사고로 숨진 고 최종근씨의 유가



엔리케의 여정

지은이 : 소냐 나자리, 옮긴이 : 하정임, 출판사 : 다룬

L.A. 타임즈지의 연재기사를 바탕으로 쓴 이 책은 폴리처 상 2개 부문을 수상한 작품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엄마를 찾기 위해 122일간 약 5만 리의 길을 떠난 한 온두라스 소년의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엄마와 같이 있고 싶다는 열망으로 엔리케는 트럭에 무임승차하거나, 죽음을 무릅쓰고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올라가면서 위험한 미지의 세계로 계속 나아간다.

멕시코를 지나가는 여정에서, 그와 무수한 이주민 아이들은 짐승 같은 사람들의 먹잇감이 된다. 화물열차 지붕 위를 장악하고 있는 갱들과 무장 강도들은 이주민아이들을 강탈하고 기차길로 내던진다. 도처에서 부패한 경찰들은 이들의 돈을 빼앗고 본국으로 강제 추방한다. 경찰과 이민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이주민 아이들은 질주하는, 일명 '죽음의 기차'의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고 올라탄다. 이들 중 일주일에 여덟 정도는 지붕 위에서 떨어져 사지가 절단되거나 죽는다.

저자는 엔리케와 엔리케 같은 아이들이 직면하는 상황을 보다 정직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취재에 뛰어 들었다. 함께 엄마를 찾아가는 아이들의 집념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해 준다.

죽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정성껏 모금한 성금 639만원을 12일 강희복 충남 아산시장에게 전달했다.

농민신문 김광동 기자 [최종편집 : 2007/01/17]

Bee-Farming News 양봉소식

■ 양봉협회, 수천만원 '세금 폭탄'

'대도시 진입따른 과세'로 5천160만원 부과

양봉협회(회장 전기현)가 전혀 뜻밖의 세금 폭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제2축산회관으로 이주해온 생산자 단체는 모두 5곳. 문제는 바로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 서울 관할구역내로 사무실이나 주거지를 옮길 경우 '대도시 진입에 따른 과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수원에 사무실이 있었던 양봉협회가 이에 해당. 양봉협회는 이로 인해 서초구청으로부터 5천160여만원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예외규정은 있지만 양봉협회 같이 사단법인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협회는 현재 서초구청과 의견조율을 펼치는 한편, 농림부 측에도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양봉협회 관계자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생산자단체에 대도시 집입에 따른 과세를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최종편집 : 2007/01/11]